
검은 여우

베치 바이어스 지음 | 햇살과나무꾼 옮김 | 김우선 그림

5, 6학년 중심 학년군

국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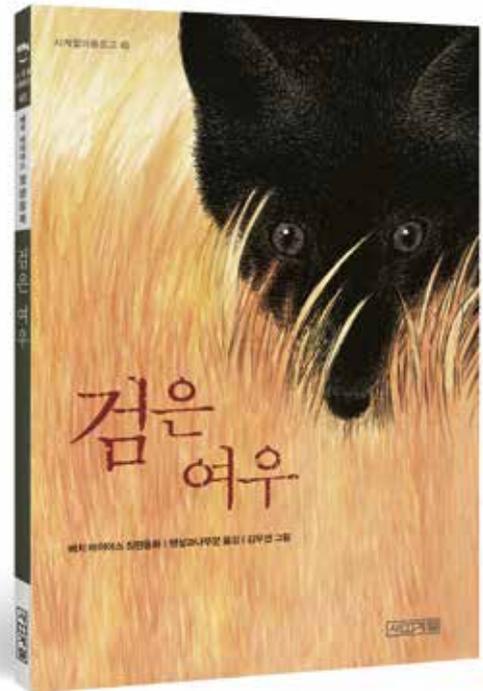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도덕: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참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느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

과학: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겁 많고 숫기 없는 도시 소년 톰이 이모네 시골 농장에서 여름방학을 보낸다. 농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은 멋진 검은 털을 바람에 나부끼며 바람보다 더 자유롭고 가볍게 들판을 달리는 검은 여우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때부터 우울하고 지루한 여름날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야생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검은 여우와 도시 소년의 만남과 헤어짐은 '성장과 자연'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학습 목표

도시에서 텔레비전과 장난감 조립만 하던 소심한 아이 톰이 '검은 여우'를 만나면서 생기와 설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톰은 바람처럼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의 존엄을 느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자랍니다. 이야기가 쓰여진 지 꽤 오래되었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자연의 자유로움과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득한 요즘에 더욱 필요한 책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장'에는 감동 없는 수많은 양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찌릿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햇볕, 바람마저 차단된 채 인공적인 형광 불빛과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과 살아가는 아이들이 언젠가 그들의 검은 여우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 1 인상깊게 본 장면이나 사물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 2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떠올려보고 글로 쓸 수 있습니다.
- 3 사건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4 나의 여가 생활을 돌아보고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 5 야생동물이 점점 줄어 가는 까닭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찾아봅니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야생 동물을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야생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야생 동물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 본 적이 있다면 느낌이 어땠나요?
- 야생 동물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맞춰 봅시다.
- 야생 동물 발자국이나 똥을 그려 놓은 그림을 보며 동물 이름을 맞춰 봅시다.
- 이 책의 주인공이 만난 야생 동물은 검은 여우입니다. 이 검은 여우는 어떤 여우였을까요?



▶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생 동물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야생 동물 사진이나 도감을 이용해서 이름을 맞춰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야생 동물을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책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동물은 크게 야생 동물, 사육 동물, 가축 동물 등으로 구별하므로 곤충이나 멧돼지, 산토끼, 청설모 등 모두 야생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우, 호랑이, 악어와 같이 정말 보기 힘든 동물들만 야생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 <정글의 법칙>이나 <동물의 왕국>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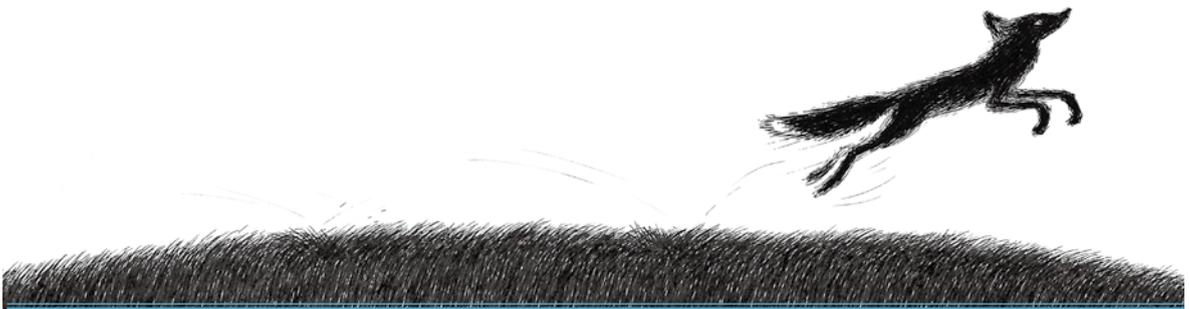
▶ 야생 동물 흔적 도감(손수건) 만들기

- 야생 동물 발자국 스텐실을 보여 줍니다.(예교삼할씨 판매)
- 미리 준비한 발자국 주인들의 사진을 보여 주고 누구의 발자국인지 맞춰 봅니다.
- 손수건을 준비했다면 염색 물감이나 염색 펜을 이용해서 원하는 동물의 발자국을 스텐실 합니다.
- 도감을 만든다면 발자국의 수에 맞춰 책을 만듭니다.
- 면마다 발자국의 주인인 동물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발자국을 찍습니다.
- 동물들의 특징을 간단히 조사하여 적습니다.



▶ 이 활동은 꼭 독서와 연계하지 않고, 야생 동물에 대한 활동으로 해도 좋습니다.

▶ 야생 동물 발자국 스탬프로도 쉽게 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독후활동

→ 검은 여우 그리기

- 톰이 여우를 처음 만나 반하는 장면을 천천히 읽어 줍니다.
- 톰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 여우와 모습을 묘사한 장면을 적은 활동지를 나누어 줍니다.
- 활동지를 다시 한번 보고 검은 여우의 모습을 상상해 종이에 그립니다.
- 각자가 그린 장면을 칠판에 붙입니다.



여우를 만나는 첫 장면 뿐 아니라 곳곳에 뛰어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책 속 여러 장면을 종이에 쓰고, 아이들마다 다른 장면을 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들을 모았을 때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만난 것까지, 이야기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직접 그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 『검은 여우』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

- 서너 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 육하원칙 카드를 만들어 나누어 줍니다.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확인합니다.
- 육하원칙 카드 뒷면에 모둠원끼리 어떤 낱말을 적을지 의논하여 적습니다.
- 이 문장이 『검은 여우』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의논합니다.
- 각 모둠이 완성한 문장을 크게 읽고 붙입니다.

예) 톰이 /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유럽 여행을 가는 바람에 / 가게 된 농장에서 / 검은 여우를 만났는데 / 검은 여우의 당당함과 이름 다음에 깜짝 놀라서 / 지루했던 여름방학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 우리는 / 이번 여름방학 때 / 산에서 / 야생 동물을 / 꼭 만나고 싶다. / 왜냐하면 『검은 여우』라는 책에서 검은 여우를 본 톰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 ▶ 카드에 낱말 한두 개로 설명이 부족하면 여러 구절을 써도 됩니다.
- ▶ ‘누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 ▶ 줄거리가 꼭 나타나기보다는 모둠원 공통의 느낌이 나타나도 됩니다.



➔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 묘사하기

- 눈을 감습니다.
- 검은 여우를 만난 톰처럼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크게 또는 작게 나를 바꾸게 한 중요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 나누어준 종이에 그 장면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하는 글을 써 봅시다.
- 시간이 되면 발표를 해도 되지만 붙여 놓고 각자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 종이를 묶어서 ‘내 인생의 장면’ 책을 만듭니다.



▶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처음 본 동생의 얼굴’, ‘아버지가 나를 크게 칭찬했을 때’,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을 때’, ‘6학년 교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등을 이야기해 주면 좀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 아리랑 곡선 그리기

- 톰의 여름방학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 되짚어 봅시다.
- 칠판에 크게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x축은 여름방학이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톰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데 위로 갈수록 긍정적이고 아래로 갈수록 부정적임을 나타냅니다. 위아래의 중간에 원점을 그립니다.
- 여름방학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닐곱 개 정도 정합니다.(시골로 떠나기 직전, 농장에 도착한 후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부터 검은 여우를 만나기 직전까지, 검은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 검은 여우를 사냥하러 갈 때, 검은 여우를 놓아 주러 비 오는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검은 여우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등).

-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로 떠나기 직전의 톰의 상태를 찍습니다(아마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아래에 찍게 될 것입니다). 사건마다 톰의 마음에 해당되는 곳에 점을 찍습니다. 전체가 많이 외치는 곳으로 따라 가서 선생님이 찍으면 됩니다.
- 각 점에는 좌표처럼 사건을 간단히 적어 둡니다.
- 찍은 점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 이것이 톰의 여름방학 아리랑 곡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리랑 곡선을 그려 봅시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6학년 동안 등의 기간을 정해 자신의 주요 사건을 대여섯 개 적어 봅니다. 톰과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그리고 그 사건 때 자신의 마음을 찍어서 연결합니다.
- 발표합니다.

▶ 곡선의 변화는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겪은 ‘톰의 변화’ 이지만 경사는 급할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끌어가면 됩니다. 다만 여름방학 전에 톰의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가까웠다면 검은 여우 사건 이후의 톰이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이들의 아리랑 곡선 역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 선생님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가, 토론하기

- 톰은 어떻게 여가를 보냈고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 톰의 놀라운 경험으로 톰은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톰의 그런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여가를 보낼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상황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동아리나 독서 토론 모임에 더 적합합니다.